

<Venture Digest>는 벤처기업의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드립니다.

신제품, 신기술, IR소식 등 알고 싶은 뉴스를 보도자료(기사, 사진)와 함께 협회 홍보팀으로 보내주세요.

협회 홍보팀 박미선 주임(02-6009-4100, 내선 301, Fax. 02-6009-4115, E-mail : pmsun@kova.or.kr)



비트컴퓨터, '비트 프로젝트' 100호 발간

비트컴퓨터(대표 조현정)는 8월 17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과 협회 장흥순 회장 등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트교육센터 재학생들이 10여 년간 수행해 온 프로젝트 성과물인 '비트 프로젝트' 100호 발간 출판 기념식을 가졌다.

비트교육센터는 지난 1990년 실무능력을 갖춘 고급 IT인력 양성과 C언어 대중화를 목적으로 비트컴퓨터가 설립한 IT전문교육기관으로 그동안 6901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까다로운 교육과정을 이수한 비트출신 프로그래머들은 IT 업계 일선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100호가 발간된 '비트 프로젝트'는 SW회사의 핵심 자산인 프로그램 소스와 기법을 공개함으로써 사회에 지식을 환원한다는 취지에서 1994년 6월부터 거의 매월 발간됐다. 총 발행 기간은 10년 2개월이며 발행 분량은 6만쪽이 넘는다. 공개된 프로젝트 수만 926개에 이르고, 참여한 개발자는 5420명에 달한다.

마로테크, PACS 月 임대방식 공급

PACS전문업체인 마로테크(대표 이형훈)는 KT(대표 이용경)의 비즈메카(bizmeka)를 통해 자사 PACS솔루션을 월 임대방식으로 공급한다고 8월 17일 밝혔다. 마로테크와 KT는 지난 5월 비즈메카의 PACS사업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고 공동 브랜드인 비즈메카-마로시스(marosis)를 개발했으며, 중소병원 및 의원을 대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양사는 시스템 구축부터 유지보수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공동영업을 통해 올해 30개 병원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또 내년에는 1000여 개 중소병원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향후 애플리케이션임대(ASP) 서비스 모델로 이를 개편해 2만여 곳에 달하는 의원들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병원은 초기 투자 비용없이 3년간 매월 PACS SW와 서버·네트워크·디지털엑스레이 등 임대된 하드웨어 사용료만 지불하면 된다.

이오테크닉스, 웨이퍼 레벨 패키지 마킹(CSM) 장비 해외공급

레이저전문업체인 이오테크닉스(대표 성규동)는 대만 ASE, 유럽 필립스, 미국의 플립칩인터내셔널(FCI)에 자사가 독자 개발한 웨이퍼 레벨 마킹 장비 'CSM2000'을 공급한다고 8월 18일 밝혔다. 이 중 플립칩인터내셔널은 웨이퍼 레벨 패키징의 주요 원천기술 소유회사로서 마킹 장비와 관련해서는 그간 미국 제품을 공식적으로 사용해 왔다. 이번에 처음으로 이오테크닉스의 CSM2000을 공식 추천 제품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CSM 장비는 웨이퍼 레벨 패키지(CSP) 상태에서 직접 마크를 새길 수 있는 것으로, 마킹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최근 LCD구동칩(LDI) 등 휴대폰용 소형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분야다.

이오테크닉스가 세계시장에서 주목받는 배경은 웨이퍼 레벨 마킹의 정밀도를 확보하는데 필수적인 기술인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좌표축을 일치시키는 기술'과 관련된 세계 특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성엔지니어링, 美 AKT 송사에서 승소

세계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업계의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인 미국 AKT와 주성엔지니어링(대표 황철주)의 특허 공방이 주성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LCD 및 반도체 전공정장치 전문업체인 주성엔지니어링은 대만에서 진행 중인 특허 분쟁과 관련한 미국 경쟁사 AKT의 가처분명령신청이 대만고등법원으로부터 원천무효 최종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주성과 AKT는 지난해 10월부터 특허 침해(PE-CVD 장치)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그동안 주성은 AKT가 대만의 고객들을 상대로 특허침해와 관련된 루머를 조성해 대만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아왔다.

주성은 이번 판결로 대만을 비롯한 해외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으며 세계시장에서 AKT와 기술력·서비스를 앞세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졌다. 특히 국내 관련업체들에도 선진국의 특허 공세에 자신감을 갖는 계기로 작용해 국산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산업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포허브, TG아시아로부터 200만달러 유치

모바일콘텐츠·솔루션업체 인포허브(대표 이종일)가 홍콩의 IT투자 전문 벤처캐피탈인 TG아시아벤처스(대표 김진하)와 200만달러 규모의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8월 17일 밝혔다.

지난 5월 유력 서비스사업자(SP)인 앰피온아시아를 인수, 중국 모바일콘텐츠시장에 본격 진출한 인포허브는 이번에 유치한 자금을 통해 현지 벨소리, 통화연결음, 모바일게임사업을 보다 공격적으로 전개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투자유치는 국내 모바일콘텐츠시장이 이동사 종속 구조와 업체간 과당경쟁 등으로 하루가 다르게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발빠르게 중국시장으로 눈을 돌린 점이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인포허브는 앞으로 중국 5대 SP로 자리를 잡은 앰피온을 발판으로, 국산 모바일게임 및 솔루션을 공급하는 등 아시아 모바일콘텐츠 '게이트웨이'로 역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이니시스, 보안기능 강화한 통합결제시스템 5.0 출시

전자결제업체 이니시스(대표 이금룡)는 강력한 보안과 결제기능을 갖춘 통합 결제시스템 5.0을 출시하고 8월 25일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시연회를 개최했다. 결제시스템 5.0은 기존 결제시스템에 ▲결제위치 표시 ▲키보드 해킹 방지 ▲결제요류 자동 복구 ▲현금 거래 영수증 발급 등의 기능을 보강했다.

이니시스는 "통합결제시스템 5.0은 결제 지불창의 핵심요소인 고객편의, 결제기능, 결제보안에서 다른 결제시스템과 차별화 된다"며 "특히 업계 최초로 사용성 분석을 통해 유저 인터페이스를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기관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대금결제를 대행해주는 결제시스템 5.0은 PKI기반의 강력한 보안성과 호환성을 갖추고 신용카드를 비롯해 무통장 입금, 핸드폰 결제 등이 가능한 국내 최대 지불수단이 장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결제서버와 DB서버가 분리돼 있어 대량거래 처리가 가능하다. 또 시스템 다운에 따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다.



탐앤타이즈, 연세대와 산학협동 체결

e-비즈니스 통합솔루션 전문 기업 탐앤타이즈(대표 안상원)는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연구소 부설 관계마케팅연구센터(공동연구센터장 이문규 교수)와 산학협동을 체결하고 e비즈니스 통합솔루션 'e토피아(TOPIA)' 제품군 마케팅 관련 협력관계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8월 22일 밝혔다.

이번 협력으로 연세대 관계마케팅연구센터는 조만간 출시될 'e토피아-오픈태스크(Open Task)'에 대한 시장분석과 이에 따른 마케팅 전략수립을 맡게 된다. 구체적으로 연구센터는 본격적인 영업에 앞서 업무효율화 솔루션 시장에 대한 현황과 경쟁구도 분석, 시장 세분화 및 목표시장에 대한 전략수립, 마케팅 믹스전략 등에 대한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탐앤타이즈가 10월경 출시할 e토피아-오픈태스크는 전사적 업무수행관리 시스템(ETMS)이라는 개념의 솔루션이다.

넥스트칩솔루션, DVR용 영상압축칩 국산화

보안용 반도체 제조업체 넥스트칩솔루션(대표 김경수)은 M-JPEG(변형 정지영상압축기술)기반의 비디오코덱칩 'NVP3000'을 개발, 양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M-JPEG기반칩은 영상신호의 압축(Encoding)과 복원(Decoding)을 각각 처리하는 두 개의 칩을 쓰는 미국 제품이 세계 시장을 장악해왔다.

하지만 이번 제품은 두 가지 기능을 하나의 칩으로 실시간 동시 처리함으로써 DVR제품의 크기를 줄이고 원가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또 하드디스크 컨트롤 기능을 내장, 별도의 칩 없이도 사용 중인 하드디스크의 손상여부, 잔여공간 등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녹화화면을 시간·사건·파일별로 검색하는데도 편리하다.

이밖에도 수 백 장의 정지영상을 저장했다 꺼낼 수 있어 아파트 비디오폰의 캡처시스템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웹을 통한 원격감시, 화면 조작 방식을 위한 물결무늬 표시기능도 갖췄다.

daou (주)다우기술

다우기술, 2년 연속 상반기 흑자 다우기술(대표 최현규)은 상반기동안 매출 약 234억원, 영업이익 2억 7000만원, 경상이익 24억8000만원의 경영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에 비해 각각 7%, 65% 증가한 것으로 2년 연속 상반기동안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최현규 대표는 "한국BM과의 총판계약(VAD)으로 인한 솔루션 영업확대와 기업애플리케이션통합(EAI)·콘텐츠관리시스템(CMS) 사업의 호조 덕분에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INSUNG 인성정보

인성정보, 상반기 경상이익 흑자 전환 인성정보(대표 원중윤)는 상반기 매출 244억9600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5% 성장했으며, 경상이익도 6억7500만원을 기록해 흑자전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또, 계열사인 아이넷뱅크도 전년동기대비 60% 성장세를 보여 매출 106억4700만원, 영업이익 5억1800만원을 달성했으며, 인성디지털은 매출 451억51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4억9800만원으로 흑자 전환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실적 호전은 그 동안 투자해왔던 보안 및 스토리지 부분의 매출증가와 솔루션 부분의 프로젝트 수주를 통해 전년대비 매출이 상승했고, 계열회사의 실적 호조로 지분법평가이익에 따른 경상이익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nexus COMMUNITY

넥서스커뮤니티, 대만 콜센터 구축사업 잇단 수주 넥서스커뮤니티(대표 양재현)는 최근 튀리히생명보험, 대만생명, 위안송 등 대만 유수의 생명보험사들의 콜센터 구축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주한 3개 생명보험사 콜센터에 공급된 제품은 각각 60석, 65석, 68석 규모의 아웃바운드 솔루션이다. 이 회사는 또, 위안송과 대만생명 콜센터의 대규모 추가 증설에 대한 협의를 진행중에 있어 수주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넥서스는 이번 사업 수주를 발판으로 중국내 다국적 생명보험회사들의 콜센터 구축 프로젝트 수주 작업도 활기를 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